

## 제 2·3 회 에너지 經營人 懇談會 開催

### 에너지政策, 對應戰略 改善方向 提示

#### 제 2 회 懇談會 李鳳瑞 動資部長官 演說

韓國에너지協議會는 지난 3월 28日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2회 에너지經營人 懇談會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李鳳瑞 동력자원부장관을 비롯하여 安秉華 한국에너지協議會 회장(韓電社長)과 會員社 및 동자부 산하기관의 經營層人士 등 약 140명의 에너지界 지도급 인사들이 참석하여 조찬과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安秉華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한국에너지協議會가 주최한 懇談會에 石油, 石炭, 가스, 電力 등 에너지關聯 團體의 經營人들이多數참석하여 준데 대해 감사하며 오늘의 이 간담회에서 당면한 에너지문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아울러 에너지分野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에너지界 발전에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李鳳瑞 동자부장관이 特別演士로 초청되어 「國內外 에너지環境의 變化와 우리의 對應戰略」이라는 演題로 약 1시간에 걸쳐 강연을 하였다. 李鳳瑞 장관은 강연을 통해 한국 에너지協議會가 주최하는 지난번 제 1회 에너지經營人 懇談會에 이어 오늘 제 2회 간담회에서 1989年度の 정부의 에너지政策 方向을 辟역하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지난번 全國經濟人聯合會에서 연설한 제임스토피노교수의 “資本市場의 統制를 해제함에 따른 危險한 함정들”의 내용과 워싱턴 포스트紙의 社說을 예로 들면서 한국의 실정과 대비하여 공통점이 있다고보고 石油, 石炭, 가스, 電力 등 각 부문에 걸쳐 상세한 시책 方向을 제시하였다.

특히 오는 1990年代 中반에 石油 波動등 에너지

危機가 닥칠 것이 예상되며 斜陽期에 있는 石炭産業의 合理化方案, 電力需要의 급증등, 급변하는 에너지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原子力과 石炭發電所의 건설 촉진, 新·再生에너지의 개발利用과 함께 石油 備蓄, 技術自立등 적극적인 에너지節約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는 에너지經營人들의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어 에너지 각 분야의 앞으로 진로와 경영 운영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韓國에너지協議會는 그成果에 힘입어 에너지의 當面問題에 대해 經營人懇談會를 分期마다 개최하여 에너지문제의 의견교류와 會員社 및 에너지關聯機關의 協力增進을 圖謀할 계획이다.

#### 제 3 회 懇談會 曹喜澈 國會議員 演說

韓國에너지協議會가 주최하는 제3회 에너지經營人 朝餐懇談會가 지난 6월 2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懇談會에는 李鳳瑞 動力資源部長官, 曹喜澈 國會議員, 安秉華 에너지協議會 會長을 비롯하여 에너지 경영인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연사로는 國會 動資委員會 曹喜澈 議員이 특별연사로 초청되어 “한국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이에 앞서 安秉華 會長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28일 제2차 에너지 경영인懇談會에 이어 오늘 개최되는 제3회懇談會에 에너지 관련 會員社 경영층 여러분이 다수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어준데 대하여 감사하며 특히, 國會 曹喜澈 議員을 演士로 모시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말하고, 조희철 의원의 경력을 설명하면서 특히 原子力에너지 問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國會 動資委 중진 위원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曹 議員은 이날 “한국 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약1시간 동안의 講演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리를 베풀어 준 韓國에너지協議會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政治, 經濟, 社會的으로 크나 큰 變革期를 맞이하여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같은 어려움속에서도 에너지에 관한 知識, 技術 및 情報를 보급, 발전시키고 國內外 關聯 機構의 協력을 촉진하여 國民福利增進과 國家經濟 發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에너지 經營人 여러분에게 감사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에너지를 인체의 혈액에 비유하면서 에너지는 國民 福祉向上과 國家 經濟發展의 원동력이며 國防問題와 맥락을 같이하는 중요한 基幹産業이라고 강조하고 人類文明의 歷史는 바로 에너지 利用의 發展史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에너지 政策의 問題點으로 天然資源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형편에 있으며, '70년대의 두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政策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어 합리적인 需要管理와 에너지 資源問題등 長期綜合 對策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수준, 지역여건, 이용구조의 복잡성등을 감안하여 균형있는 政策을 수립하고 에너지 利用에 따른 安全 및 환경문제와 미래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賦存資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技術革新을 이룩하여 기술 집약적 에너지 産業을 발전시키고 國際協力を 통한 에너지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인류의 에너지 普及 건설을 이룩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에너지 정보망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政策 推進, 原電의 안전성 확보와 反核 運動에 대한 효율적 대처, 에너지 施策의 民主化 促進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行政當局이나 産業界는 勿論 우리 國會도 초당적으로 합심하여 WEC(世界 에너지會議)의 ‘人類의 最大 편익을 위한 에너지 資源의 開發促進과 平和的 利用’에 寄與하자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民主化 時代를 맞는 에너지 行政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國會와 긴밀한 對話를 가지고 國會의 비판적 조언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國民의 합의를 기초로 한 효율적 政策 樹立과 日관된 政策 運營으로 國民에게 신뢰받는 장기적인 안목의 에너지 政策을 추진하여 에너지 技術 革新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韓國에너지協議會 安秉華 會長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하여준 曹喜澈 國會議員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 제 3 차 技術諮問 委員會 개최

### WEC총회 개최 검토·리비아 視察團 訪韓준비

한국에너지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제3차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鄭根謨 委員長과 諮問委員들이 참석한 가운데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案件으로 上程되어 본위원회 위원들이 審議·討議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用語集 발간문제는 에너지研究會와 共同으로 WEC가 1986년 영, 불, 독, 서반아어 등 4개국어로 발간한 바 있는 에너지용어집 제2판을 국, 영문판으로 발간하기로 하고 이 준비작업으로 金浩卓 博士를 WEC 'Energy Terminology' 위원회에 파견키로 하였다.

둘째 1988년 11월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개최한 한·리비아세미나의 後續 활동으로 리비아에서 에너지 專門家들로 産業視察團을 구성, 한국에너지산업시찰을 제의하여 음에따라 韓電 등 10여개 관련 회원사의 협조로 兩國 協力可能性 및 韓國企業進出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視察計劃을 作成, 6월 26일에서 30일까지 이를 실시키로 하였다.

셋째 WEC 제14차 몬트리올 총회 참가와 관련

하여 토의한 결과 IEC 회의 公式 및 交替代表 選定은 회원사들로부터 正式登錄을 받은후 정근모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에서 결정키로 했으며, IEC Agenda로 '한·리비아 에너지세미나, 제2회 에너지經營人 懇談會, KAIF/KNS 合同年次總會'를 보고키로 했다.

넷째 W. Cisler 前 WEC-IEC 의장의 1995년도 WEC 제16차 총회서울개최제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WEC 본부가 1995년도 총회개최를 일본에 勸誘한 바 있고 日本國內委員會 역시 개최할 意思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번 몬트리올 총회 참석시 WEC 본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所要經費, 施設 및 組織에 관한 細密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1995년도 총회가 일본에서 개최될 경우 동남아 지역에서의 連續開催가 困難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1년 개최를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WEC 本部에서 技術研究事業으로 'Energy Issues of Developing Countries' 委員會를 구성하여 앞으로 3년간(1989. 9~1992. 9) 研究·調査業務를 遂行코자하며 이와 관련 에너지협의회 김상연 사무국장을 極東地域 擔當 副委員長으로 指名하여 수락할 것을 通告해온 바, 토의결과 이를 수락함으로써 東南亞地域 여러국가들의 에너지現況 把握등 에너지 關聯資料 및 情報蒐集이 용이해지고 국내배포 등의 利點이 있어 受諾하기로 하고, 適任者로 여러 人士가 거론되었으나 業務遂行을 위해서는 組織體가 필요하므로 WEC 本部가 指名한대로 에너지協議會 金相演 事務局長을 推薦키로 하였다.

그외에도 WEC Journal 기고, 회원확충, 세미나 개최, 제3차 에너지經營人 懇談會 개최, 分野別 에너지 冊子 發刊등의 案件이 토의되었다.



## 에너지 分野別 책자 發刊 編輯會議 개최

國內外 에너지 관련기관, 관계자 및 일반인들에게 한국의 綜合的인 에너지 관련자료 提供 및 海外弘報에 수시 활용하고 WEC 제14차 총회시 홍보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1987년 서울 IEC 회의시 발간한 바 있는 에너지分野別 冊子를 補完 發刊하기로 하고 지난 4월 12일 參與機關(에너지經濟研究院 등 9개기관) 實務者會議를 本協會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發刊 形態는 각 분야별로 제작하고 '87년도판을 參考로 하여 해당분야 현황 및 전망 등 홍보에 적합한 체제가 되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며, 87, 88년도의 통계를 첨가하기로 했다. 또한 '87年度版에는 수록하지 않았던 New and Renewable Energy 부분을 추가하여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作成하고 각 분야마다 R & D 부분의 보강을 고려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분야별 data의 일치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예정인 '2010년까지의 에너지 장기수급 전망'을 참고하기로 했다.

### 해당분야별 작성담당기관

· Energy Demand and Supply	에너지경제연구원
· Energy Conservation	에너지관리공단
· Electric Power	한국전력공사
· Petroleum	대한석유협회
· Coal	대한석탄공사
· Gas	한국가스공사/여수에너지
· Nuclear Energy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ew and Renewable Energy	한국동력자원연구소
· 綜合 및 要約文 翻譯	한국에너지협의회

## 韓國에너지協議會 事務室移轉

韓國에너지協議會 事務局은 그간 江南區 三成洞 87번지 韓國重工業(株)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한국전력의 협조로 지난 3월 31일 영등포구 汝矣島洞 21번지 韓電 南서울電力管理處 건물로 다음과 같이 이전하였다.

1. 이전일시 : 1989. 3. 31
2. 이전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번지  
(한전 남서울 전력관리처 사옥 609호)  
서울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292호  
(우편 150-602)
3. 전화번호 : ○ 사무국장실 : 782-6465  
787-8505  
○ 사무국(대표) : 782-8731  
기획관리부 : 787-8509  
국제협력부 : 787-8508
4. FAX : 785-3975
5. TLX : KAIFRM K33870

이날 사무실 開所에는 한국에너지協議會 李宗勳 副會長을 비롯하여 韓國原子力産業會議 金善稔 副會長, 韓電 南서울 電力管理處 최정림처장 등 관계인사가 다수 참석하여 개소를 축하하였다.

